

스튜디오드래곤 (253450)

기업이슈 브리프 | 미디어/엔터

Buy (maintain)

목표주가	140,000 원
현재주가	88,700 원
시가총액	24,882 억원
KOSDAQ (3/25)	727.21 pt

컨센서스 대비

상회	부합	하회
	●	

Stock Data

90 일 일평균거래대금	157.53 억원
외국인 지분율	3.2%
절대수익률 (YTD)	-4.0%
상대수익률 (YTD)	-11.6%
배당수익률 (18E)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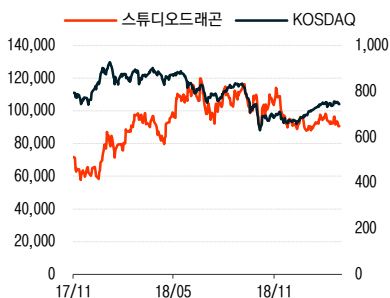
재무데이터

(십억원)	2017	2018	2019E	2020E
매출액	287	380	480	607
영업이익	33	40	85	119
순이익	24	36	66	91
ROE (%)	9.5	9.2	14.8	17.2
PER (x)	84.1	54.4	37.6	27.4
PBR (x)	5.4	6.1	4.8	4.0

주: IFRS 연결 기준

자료: 스튜디오드래곤,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Stock Price



지티스트 인수로 초격차 전략 강화

Analyst 김현용 _ 02 3779 8955 _ hyunyoung.kim@ebestsec.co.kr

전일 드라마 제작사 지티스트 지분 100% 250억원에 인수 공시

● 동사는 전일 공시를 통해 노회경 작가, 김규태/홍종찬 연출이 소속된 제작사 지티스트를 인수하기로 공시함. 지분 100% 20만주를 250억원(자기자본 6.2% 비중)에 현금 취득하는 조건

● 지티스트는 tvN과 꾸준한 거래 관계를 이어 왔으며, 2017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4부작 리메이크 작품), 2018년 라이브(넷플릭스 판매), 2019년 호텔 델루나(홍자매 차기작) 등을 제작한 역량 있는 제작사

● 후발 제작사들이 자본 확충과 작가진 확보로 도약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동사의 금번 인수는 추격의지를 꺾고 초격차를 공고히 하는 점에서 긍정적

2016년 제작3사 인수시 대비 비싼 조건이나 시장상황 감안시 OK

● 화앤담픽처스(김은숙 작가), 문화창고(박지은 작가), KPJ(김영현/박상연 작가)의 3사를 인수할 당시는 평균적으로 제작사당 200억원 초반을 지불. 금번 250억원에 인수하는 지티스트는 2017년 매출액 14억원, 자본총계 1억원인데다 확보한 핵심 크리에이터들의 시장 영향력은 먼저 인수한 3사 대비 약한 것이 사실

● 그러나, 이번 인수의 경우 제이콘텐츠리의 대규모 유증을 통한 실탄 확보와 SBS의 드라마 사업 분사후 투자유치 움직임 등 급박한 경쟁환경에서 이루어진 점을 감안시 비싼 인수대가를 부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려움

이제 시장 관심은 라인업 경쟁력 회복과 수익성 검증

● 동사 라인업은 연초 들어 월화극 왕이 된 남자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흥행작을 만들어내지 못하며 다소 고전하는 모습. 라인업 평균시청률도 주요 지상파에 다시 밀린 상황. 4월 그녀의 사생활(박민영), 5월 아스달 연대기부터 본격적인 라인업 반등 기대

● 연이은 제작사 인수와 대작 위주의 화려한 라인업 영향으로 동사 제작비용 캐파는 경쟁사를 압도. 그러나 그만큼 넷플릭스 판매를 비롯한 수익성 확보에도 미스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

